

6/16/19

설교 제목: 장로들의 전통을 좇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7장 1-23 절

- (막 7: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절관주** 마 15:1
- (막 7: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막 7: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 (막 7: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 (막 7: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 (막 7: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절관주** 사 29:13
-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 (막 7: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 (막 7: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 (막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 (막 7: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절관주** 마 15:5
- (막 7: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 (막 7: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막 7: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절관주** 마 15:10
- (막 7: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절관주** 고전 8:8, 딤페전 4:4

- (막 7: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 (막 7: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 (막 7: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 (막 7: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 (막 7: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막 7: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 (막 7: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 (막 7: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하시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막 7: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 (막 7: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막 7: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 (막 7: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 (막 7: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 예수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사이에 조상 때부터 구두로 전승되어 온 행위법 내지는 판례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일일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장로의 전통으로 규정해 놓고 이것에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법적 권위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기 전 우리는 왜 예루살렘의 중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갈릴리 지방의 율법 학자들이 요청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자 불안해진 갈릴리 지방 율법 학자들이 중앙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초청해 예수님의 인기를 누그러뜨리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서 중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죄를 사하는 행위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자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행위가 종교적인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유대 주의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미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중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간에 그들은 이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해 나쁜 편견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살피다가 꼬투리만 잡으면 바로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마침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기회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승인 예수에게 물어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품은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몰아세우십니다.

(막 7: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막 7: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기록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이라고 하며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종종 충돌하였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장로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는 외식의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막 7: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막 7: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막 7: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막 7: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뜻을 박습니다.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약화시키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을 드셨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사람들의 재물에 고르반을 선언하면 그 재물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를 봉양해야 할 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여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핑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고르반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헌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따져묻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바칠려고 그랬다고 핑계를 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고로 재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로의 전통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설상가상 '고르반' 서원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를 끝까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고르반' 서원은 남자의 경우에는 50 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30 세겔을 내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르반 서원을 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 봉양을 할 재산을 성전에 바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장로의 전통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장로의 전통을 고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상대를 바꾸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막 7: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막 7: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막 7: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막 7: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막 7: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막 7: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막 7: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막 7: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막 7: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위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으로 꾸미고 가식으로 포장을 하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거짓된 말에 토해내실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도 아침도 다 필요없으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마침내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희생을 고마워하는 마음,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갖 궁리를 짜내고 설레발을 떠는 가식적인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지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당장 보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새 출애굽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값진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